

# 우 화



밤하늘에 높이 뜬 달은 제가 제일이노라 빠기였습니다.  
(뛰니뛰니 해도 동산을 밝게 비쳐주는것은 나지. 수많은 별들이 아무리 반짝거리며 빛을 내도 한갓 반디불에 지나지 않거든.)

거드름을 피우던 달은 혹시 자기를 봐주지 않나 하여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였습니다.

마침 조용한 숲속에서 부엉이가 내리쬐히더니 들쥐 한 마리를 움켜쥐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부엉이도 내가 비쳐주는 덕분에 쥐잡이를 할테지.)

이렇게 생각한 달은 부엉이한테 눈길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거 부엉이가 아니냐?》

《예, 달아씨가 어떻게?》

부엉이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부엉이도 나의 밝은 빛때문에 쥐잡이를 쉽게 하겠지?》

《네. 달아씨의 빛이 저의 쥐잡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음, 그렇다면 뭐 생각되는바가 없나?》

부엉이는 달의 말에 그만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 도리가 없구만. 나의 밝은 빛이 도움이 되었다면 생각되는게 없나?》

그제야 부엉이는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예에... 알만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라는거군요.》

부엉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달이 이렇게까지 나올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똥똥 떠서 뼈꾸기한테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꾸지람을 했다는 달이였습니다.

그때 부엉이는 뼈꾸기한테 달아씨가 그럴수 있느냐고 오금을 박아놓았는데 오늘 정작 달을 대하고보니 그의 속심을 속속들이 들여다볼수가 있었습니다.

부엉이는 커다란 눈을 슴벅이며 생각하다가 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리가 밝으신 달아씬 해한테 값을 얼마큼씩 내군 하는지요?》

부엉이의 말에 환하던 달의 얼굴이 금시 새파래졌습니다.

《해한테 값을 얼마나 내느냐구? 호호호. 낮에 뜨는 해하고 밤에 빛을 뿌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해한테 값을 낸단 말이나. 허참.》

자기밖에 없다고 으시대던 달은 성까지 발끈 냈습니다.

부엉이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웃었습니다.

《값을 내기는 고사하고 자기를 내세워준 은인도 모르는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달아씨야 혼자서는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빛을 받아야 밝은 빛도 내고 제 모습도 나타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 모르고있었는가요?》

그러자 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빛을 뿌리기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 제 모습조차 나타내기 힘든 자신을 돌이켜본 달은 얼굴이 빨개지며 지나가는 구름속으로 슬며시 숨어버리고말았습니다.

부엉이는 몸을 숨기는 달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 낮을 내기에 급급하면 자기를 내세워준 은인도 모르는 법이라오.》